



# 전북현대, ACL 결승전 '코앞'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오는 19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다.

팬들은 전주성의 좌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일반석 예매와 15일 지정석 예매까지 시작되면서 2011년도 4만 관중 재현이 눈앞에 다가온게 아니냐는 소리를 듣고 있다.

전북은 이러한 열기에 따라 AFC 측에 양도해야 하는 지정 좌석을 제외한 잔여 지정석에 대해서는 모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성의 총 좌석은 4만 2,000석으로 올 시즌 전경기 시즌권을 끊은 1만 3,000석과 원정팀에게 전달해야 하는 3,000석을 제외하면 약 2만 6,000석여가 남는 상황이다.

전북 수뇌부는 성적은 우승을 했던 2006년처럼 관중은 4만이 넘는 2011년처럼 되고자 하는 'Again 2006, Again 2011'이라는 구호를 만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

다.

구단 사무국은 5년 전과 판이하게 달라진 까다로운 AFC 규정으로 인해 관계자 의견 및 시설 준비 등으로 눈코 뜰새 없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북은 주요전력의 이탈 없는 최고의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라이온킹 이동국과 국가대표 공격수 김신욱, 이종호, 중동길러 에두 등 공격 자원이 풍부해 컨디션 올리고 있어 치열한 주전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로페즈와 레오나르도, 김보경, 이재성 역시 컨디션 조절에 신경 쓰며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전북 이철근 단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경기가 이제 나홀로 앞으로 다가왔다"며 "19일 경기만큼은 전주성에 우리 선수들을 연호하는 함성이 가득 메워지기를 부탁드린다. 그 함성에 우리 선수들이 꼭 보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 WKBL 하나은행, 1라운드 5전 전패

### 예견됐던 일... 시발점 '첼시 리 파문'

"하나은행이 여자농구의 평준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박종현 전 하나은행 감독)

지난 시즌 창단 최초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지만 일장춘몽이었다. 여자프로농구 부천 KEB하나은행 이야기다.

하나은행이 지난 14일 구리 KDB생명과의 경기에서 62-69로 지면서 1라운드를 5전 전패로 마쳤다. 동계복심세다.

예견됐던 일이다. 시발점은 첼시 리(27) 파문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시즌 해외동포선수 자격으로 영입한 첼시 리 덕에 활거왔던 골밑을 강화했고, 창단 첫 챔피언결정전 진출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난 시즌이 끝난 올해 4월 첼시 리가

서류조작으로 신분을 세탁한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 수사에 따라 조작으로 뻔 부정선수임이 드러났다.

여자프로농구를 속대발로 만들었다. 첼시 리는 영구제명 됐고, 지난 시즌 하나은행의 성적은 모두 무효가 됐다. 시상금도 당연히 환수됐다.

또 구단주와 감독은 사퇴했고, 사무국장은 감봉 조치를 당했다.

해외동포선수 제도는 폐지됐다.

하나은행은 WKBL의 징계로 올해 외국인과 국내선수 드래프트 지명권도 최하위인 1라운드 6순위, 2라운드 12순위를 받았다. 사실상 전력 보강을 허용하지 않은 꼴이다.

설상가상으로 1라운드 6순위에선 선발한 외국인선수 에어리얼 파워스는 부상 탓에



올해 4월 첼시 리가 서류조작으로 신분을 세탁한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 수사에 따라 조작으로 뻔 부정선수임이 드러났다. 첼시 리는 영구제명 됐고, 하나은행의 성적은 모두 무효가 됐다.

합류하지 못했다. 대체선수 카일라 손튼으로 시즌을 맞았다.

국내선수의 주축인 김정민(29), 김이슬(22), 신지현(21)도 모두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평준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던 하나은행, 8개월 만에 1승 지만기로 전락했다.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

### 완주군, 전북 현대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원

전북 현대 모터스와 '축구 메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이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1차전에 직원과 주민의 관람 및 응원을 통해 우승달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군은 오는 19일 오후 7시에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1차전과 관련 이미 구입한 일반 시즌권 100매를 활용해 직원들이 관람과 응원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부터 관내 주요 10여 곳에 아랍에미리트(UAE)의 알아인[과]의 결승전을 소개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당일 경기장장을 찾아 12번째 선수로서, 전북 현대가 구단 사상 두 번째로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과 2015년 K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전북 현대는 올해 준우승에 머물렀으나,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결승에 올라, 오는 19일(홍파) 20일(원정) 등 2번의 경기를 통해 지난 2006년 이후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완주=이종복기자

### 두산 김재호, FA 1호 계약 4년 총액 50억원

두산 베어스 한국시리즈 2연패의 주역이자 주장인 김재호(31)가 올 시즌 1호 FA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은 15일 유격수 김재호와 4년간 계약금 20억원, 연봉 6억5000만원, 인센티브 4억원 등 총액 50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KBO리그 유격수 FA 사상 최고 대우다. 지난 2006년 박진만(당시 삼삼 라이온즈)이 4년 총액 39억원이 최고액이었다. 세브 인센티브 계약 조건은 구단과 선수 양측 동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재호는 2004년 입단한 이래 줄곧 두산에서만 뛰었다. 올 시즌에는 팀의 주장을 맡아 선수단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두산의 KBO리그 통합 우승에 큰 역할을 했다.

올 시즌 137경기에 출장해 개인 최고인 타율 0.310(416타수 129안타) 7홈런 69득점 78타점을 기록했다.

김재호는 "두산팬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준 구단에 감사하다"며 "합단하고 2군과 백업 생활을 오래하면서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지 못했다. 가족과 훌륭한 스승, 좋은 동료 선수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구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2019세계태권도선수권, 영국 맨체스터 개최 확정

세계태권도연맹(WTF·총재 조정원)은 14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19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19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영국 맨체스터와 미국 휴스턴 두 곳에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쟁했다.

집행위원들은 경기장 시설과 그 동안 그랑프리 시리즈를 개최해 온 영국태권도협회를 국제대회 개최 능력을 인정, 맨체스터를 최종 개최지로 결정했다.

대회는 2019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이와 함께 2017~2019년도 WTF 태권도 월드그랑프리 시리즈 및 파이널 대회 개최자들도 함께 선정했다.

2017 태권도 월드그랑프리 시리즈 3차전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그랑프리 파이널과 월드태권도팀선수권대회는 코트 디브로르 아비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18 그랑프리 2차전은 러시아 모스크바, 그랑프리 3차전은 영국 맨체스터로 결정했다.

2019 그랑프리 2차전은 일본 지바, 그랑프리 파이널과 월드태권도팀선수권대회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다.

/김민근기자